



퇴계 이황의 무욕의 리더십

조선시대 중종의 뒤를 이은 인종이 병을 얻어 재위 8개월 만에 죽자, 불교 12세의 동생 명종이 왕위에 올랐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하게 되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대운 소운 간의 갈등과 정파 논쟁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나 많은 신료들이 죽음을 당했다. 대운이 몰락하고 5~6년 이상에 걸쳐 죽은 자가 1백여 명에 달했다. 사대부들은 어느 쪽에 줄을 대야 살아남을 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백성의 안녕이나 국방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 그 때문에 양재역에 문정왕후를 비난하는 벽서가 나붙고 그를 계기로 옥사가 일어나는 등 조정이 어수선했다.

국내적으로는 양주의 백정 출신인 임경직이 1559년에서 1562년 사이에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탐관오리를 죽이는 일이 횡행했고, 밖으로는 삼포왜란 이래 쓰시마섬과의 무역선인 세경선의 감소로 곤란을 받아오던 왜인이 1555년 배 60여 척으로 전라도에 침입해 영암·장흥·진도 등을 유린하는 을묘왜변(乙卯倭變)이 발생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조정에서 출사한 퇴계는 대부분을 향리에 머물며 자신을 닦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가 청렴하고 덕을 세우며 중도를 지키는 인물이었으므로 명종이나 조정의 백관들이 그를 불러내자고 입을 모았으나 그는 병을 핑계 삼아 늙었고 재지(才智)가 큰일을 담당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갖은 직분을 사양하고 기어이 물러가고야 말았다. 이황은 예법(禮法)으로 자신을 지키면서 남의 조롱이나 비웃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상한 뜻과 차분한 마음으로 정도만 걸었다. 그가 벼슬을 한 것도 늙은 어머니를 위해 과거를 본 것일 뿐, 그것으로 이름을 날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무욕의 삶을 실천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퇴계는 아무런 욕심도 없었고 앞에서 잘난 체하는 일이나 뒤에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법이 없었다. 오로지 성리(性理)의 학문에 전념하다가 《주자전서(朱子全書)》를 읽고는 그것을 좋아해 한결같이 그 교훈대로 따랐다. 그는 심한 소화불량과 안질 등으로 고생했는데, 그럼에도 손에서 책을 놓는

적이 없을 만큼 열정적인 학구열을 보였으며, 청빈해서 군수직을 그만둘 때는 책 꾸러미 몇 개만 갖고 돌아갔다고 전할 정도였다.

퇴계는 1534년 식년문과에 을과(乙科)로 급제된 후 호조좌랑, 정언 등 여러 관직을 거쳤다. 1542년에는 검상(檢詳)으로 충청도 안행어사로 나가 민심을 살폈다. 조정에 돌아와 그는 임금에게 백성의 구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건을 올리다가 하연 왜구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책을 제시해 외교문제를 원칙과 현실의 조화로 해결하려는 탁월한 외교적 역량을 발휘했다.

48세, 49세 사이의 2년은 단양군수와 풍기군수로 외직에 나가 있었는데 이때 단양군수로 부임해 다스리는 일이 많고 간절했으며 아전이나 백성들을 모두 편안하게 해졌다. 이때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의 편액과 서적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만들었다. 그는 천민이던 야옹(대장장이)까지 가르쳐 시대를 뛰어넘는 교육자 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52세 때 다시 조정에 나와 홍문관 교리로 경연에서 임금의 모시고 강의했고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됐다. 그 후 명종이 21세가 되자 수렴청정 하는 문정왕후에게 임금에게 정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교서를 올려 문정왕후를 놀라게 했다. 그만인 할 수 있는 담대한 충언이었다.

그는 명종 사후 선조에게 정치의 기본 원리와 담판과제인 '무진육조소'를 올리고, 선조를 위해 자신의 평생 학문의 진수를 집약한 '성학십도'를 올렸다. 이 두 가지는 퇴계의 사상과 정치철학을 한눈에 보여주는 진수다. 선조는 성학십도를 병풍으로 만들어 항상 음미할 수 있게 할 만큼 그를 신뢰했다. 그는 임금에게 "나라는 항상 위난에 방비함이 있어야 하고, 스스로 견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임금의 요청에 따라 이응경과 기대승을 천거하고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 분의 얼굴을 뚫어 새겨놓은 것은 바로 그 무욕의 정신을 본받자는 뜻인데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그런 존재가 드물니 아쉬울 뿐이다.*

수녀의 요가 교실

내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김장철이 지나면 요통 환자가 늘어나면서 겨울은 근육이 괴로운 계절이다. 기운이 뚝 떨어지면 근육이 쉽게 경직되기 때문인데 특히 여성은 뼈나 연골을 보호해주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시기여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골다공증이 시작되는 중년 이후 남성도 마찬가지로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적절하게 반복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요가로 단단한 근육을 만들어 혈액순환이 잘 되는 몸으로 겨울나기를 건강하게 준비해볼까요?

견상자세의 효과

효능: 전신피로 해소, 근력강화, 집중력, 균형감각, 하체강화, 발바닥 발목 스트레칭, 뒤틀린 척추 발목 교정, 어깨

깨빠르게 크게 확장시켜 주기 때문에 어깨 결림 풀어주고 자율신경계 조절에 효과적. 허벅지를 늘려주어 셀룰라이트 형성을 막아준다. 도립의 효과로 뇌 호르몬을 촉진시켜 성인들의 피로회복에 효과적, 두통과 머리를 맑게 한다. 다리 라인을 아름답게 해준다.

동작①: 네발자세에서 호흡을 마시면서 엉덩이를 하늘 높이 끌어올린다. 머리를 양손 사이로 끌어내려 가슴이 무릎을 향한다. 골반의 균형을 잡고 호흡을 내쉬며 엉덩이를 수축한다. 10초 유지, 5회.

동작②: 1번 자세로 호흡을 마시면서 뒤꿈치를 높이 들어준다. 무릎을 꼭 껴준다. 10초 유지, 5회.

동작③: 1번 자세에서 호흡을 마시면서 한 발 한 발 가슴 앞으로 걸어가 양발을 붙여 엉덩이를 위로 끌어올린다. 10초 유지, 5회.

동작④: 3번 자세에서 호흡을 마시며 한쪽 다리 안쪽에 힘을 주며 반대쪽 다리를 하늘 높이 끌어올린다. 발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한다. 양쪽 각각 10초 유지, 3회.*



道常無名樸雖小

도상 무명 박수소

도는 항상하며, 이름도 없고, 비록 작아보일지라도 절대본체와 같다

도덕경 32장 해설

도인은 강과 바다와 같은 존재다. 강과 바다는 수많은 작은 물줄기가 유입되어 큰 하나를 이룬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에 머물기 때문에 모든 작은 물줄기가 자연스럽게 모여 큰 하나를 이룬다. 거기에는 온갖 생명 있는 것들이 모여들어 생태계를 조성하며 살게 된다. 생명체가 살아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의 생태가 우리네 인생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인간의 마음자세와 태도가 가장 낮아질 때 강과 바다와 같아서 수많은 작은 물방울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무리를 이룬다. 강과 바다와 같이 크고 넓은 마음과 생각 아래서 살면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것이 소위 도인이 갖은 덕으로 겸손과 하심(下心)이 가져다주는 마음의 수혜를 말한다. 사람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인격수양의 면모를 갖추면, 그는 곧, 강과 바다와 같아져서 모든 작은 물방울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 큰 강과 바다로 융화

되어 하나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물의 이치와 원리로서 인간사 모든 길흉화복과 흥망성쇠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된다. 자고로 일이란 사람이 모여서 대업을 도모하기도 하고 대역사를 이루기도 하여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 장은 하해(河海)와 같은 도인의 덕이 인간에게 두루 미치는 미덕을 노래한 것이다. 마음으로 감상하여 그 숭고한 삶을 지향하자.

道常無名樸雖小(도상무명박수소): 도는 항상하며, 이름도 없고, 비록 작아보일지라도 절대본체와 같다

도는 항상 존재해 왔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작다고 하나, 이름이 없는 순수본성 그 자체이다.

天下莫能臣也(천하막능신야): 천하(절대본체)를 신하처럼 부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이 천하를 신하처럼 부릴 수 있다는 오만과 허세는 착각이다. 절대본체는 우주 그 자체이며 또한 개체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侯王若能守之(후왕약능수지): 왕(도인)이 만약 이 도를 지킬 수만 있다면,

도인이 만약 이러한 근본 이치를 알고 지킬 수 있다면
萬物將自賓(만물장자빈): 만물은 대저 저절로 따르게 될 것이다

천하는 저절로 따르게 될 것이다.

天地相合(천지상합): 하늘과 땅이 서로 화합하면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알고 서로 화합하면

以降甘露(이강감로): 단 이슬이 내림으로써

단 이슬과 같은 감로가 내리게 된다.

民莫之命而自均(민막지명이자균): 백성들에게 억지로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스려지는 것이다.

감로가 내리면 천하는 억지로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다.

始制有名 名亦既有(시제유명 명역기유): 규제가 시작되고 이름이 있게 되면 그 이름이 역시 이미 있다 할지라도 온갖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규제

가 생기고 이름이 붙여져서 그 이름이 이미 있다 할지라도

夫亦將知止(부역장지지): 사람이란 마땅히 그 앞(분별지)을 멈춰야 하며, 사람이란 마땅히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그 앞을 멈춰야 하며

知止可以不殆(지지가이불태): 그 앞을 그치면 위태롭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한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분별지(分別知)를 그치면 위태롭지 않게 된다.

譬道之存天下(비도지존천하): 비유컨대 도가 천하에 존재한다는 것은

비유컨대 절대본체(순수본성), 우주심이 천하에 존재한다는 것은

猶川谷之於江海(유천곡지어강해): 가히 시내와 계곡이 강과 바다를 이루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모든 개체(시내와 계곡)가 흩어져 있으나 그 개체가 모여 결국 큰 하나(강과 바다)로 모여 개체는 없고 큰 하나(절대본체)를 이루는 것과 같다.

큰 하나를 이룰 때, 너와 내가 없어져 평화가 오고 행복해지며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

김주호 기자

허만욱 승사 칼럼

미륵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셨습니다

무궁무진한 총명예지(제왕의 슬기) 그리고 풍운조화를 일으켜 구사하시는 경이로운 힘을 겸비하신 무적장수(無敵將帥), 암성자 정도령(正道靈)님! 그는 진리의 본체요 영생길의 안내자요 결국 생명의 원천체이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비진리를 가차 없이 타파하고 그늘 없이 맑고 환한 인간의 본향(本鄉)을 회복하려고 나타나신 절대자요 화수고대하한 신천신지 개척의 기수이시다. 불경 상으로는 생미륵불이요 성경 상으로는 구세주요 비결

서 상으로는 정도령이시다.

동방나라 모퉁이 땅에서 혜성처럼 나타나신 이긴 자 구세진인(救世眞人), 새날은 밝았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기신 삼

위일체 하나님의 간단(間斷)없는 분신활동은 지속되고 있다. 이 놀라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마다 오직 만사형통의 대박이 널쿨째 굴러들어오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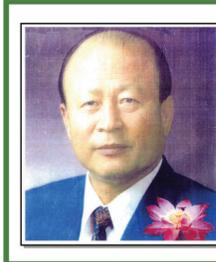
매우 양심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부처님 같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불심(佛心)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각각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생각만 해도 갑자기 가슴이 뛰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불호령이다. 이런 경우에 무조건 하나님의 경고에 순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선한 사람을 가리켜 삼대적덕자의 자손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몸속에 흐르고 있는 정결한 피의 작용임이 확실하다. 인간이 하루 속히 마귀의 탈을 벗고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필연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을 뜻하는 부처 불(佛)자는 어김없이 원시반본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佛)의 뜻은 ① 부처 불(佛) 즉 인간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 ② 깨달음 즉 인간이 마귀육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뜻, ③ 되돌아갈 려(戻) 즉 인간의 조상인 하나님으로의 환원이 시급하다는 뜻이요 풀이 된다.

미륵부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시공을 초월하여 감로(甘露) 이슬성신을 평평 내리 쏟고 계신다.*



미륵부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6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 | | | | | | | |
|------------------------|----------------------|----------------------|----------------------|----------------------|-----------------------|------------------------------|-------------------------|
| 역곡제단 : (032)343-9981-2 | 부산제단 : (051)863-6307 | 마산제단 : (055)241-1161 | 사천제단 : (055)833-7866 | 광주제단 : (062)524-4555 | 神戸祭壇 : (078)862-9522 | 神奈川祭壇 : (045)451-3150 | London : (0208)894-1075 |
| 수원제단 : (031)236-8465 | 영도제단 : (051)912-7582 | 진주제단 : (055)745-9228 | 포항제단 : (054)292-5455 | 대전제단 : (042)522-1560 | 下関祭壇 : (0832)32-1988 | Philadelphia : (215)722-2902 | |
| 안성제단 : (031) 673-4635 | 김해제단 : (055)327-2072 | 울산제단 : (052)291-1849 | 순천제단 : (061)744-8007 | 청주제단 : (043)233-6146 | 久米島祭壇 : (0942)21-4669 | | |
| 평택제단 : (031)652-6438 | 충주제단 : 010-9980-5805 | 진해제단 : (055)544-7464 | 정읍제단 : (063)533-7125 | 금마제단 : (063)853-6673 | 岐阜祭壇 : (0584)32-1350 | | |
| 이족제단 : (031)672-6786 | 대구제단 : (053)474-7900 | 영천제단 : (054)333-7121 | 군산제단 : (063)461-3491 | 橫濱祭壇 : (045)261-6338 | 大阪祭壇 : (06)6451-3914 | | |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